



人蔘雜記

食藥品의 人蔘

鄭 文 湖 (漢藥師)

人蔘에 얽힌 說話

人蔘은 자연 식물의 하나로 蔘, 또는 山蔘으로 부르기도 한다.

文獻에 나타난 자료들 보면 人蔘이 처음 발견된 것은 紀元前 2백년, 漢初 先奏 때이라는 것이 가장 오랜 年代이다.

우리 나라에서 山蔘을 처음 발견했다는 記錄은 찾아 볼 수 없지만 傳說에 의하면 이런 것이 있다.

高麗시대에 同福縣, 지금의 全南 和順군 同福면 楡川리에 崔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병에 걸려 별의별 名藥을 다 써봐도 효험이 없었다.

그래서 그 아내가 山神에게 남편의 病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다. 어느날 밤 꿈에 山神이 나타나서 靈藥이 있는 곳을 가르쳐 주곤 사라졌다.

아내는 꿈에서 山神이 일러준대로 山으로 올라가서 하나의 풀뿌리를 캐어다가 남편에게 먹였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病이 나아 그런대로

기력이 왕성해졌다

이 이름 모를 풀의 씨를 뿌려 재배하여 그 부부는 萬病療治의 名藥으로 팔아 부자가 되었다는 것이다.

또 이와 비슷한 傳說도 있다.

福岡縣(지금의 江原道 江陵, 洪川 및 京畿道 일부)에 金進士 내외가 살고 있었다. 그 아내 韓씨는 절혼이 넘어도 아기가 없어 늘 山神에게 아기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를 올렸다.

어느날 밤 꿈에 백발노인이 나타나 韓씨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꿈에서도 山神이 아들을 갖게 해주려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백발노인을 와락 끌어 안았다

꿈에서 깨어난 金進士의 아내는 꿈에 백발노인을 만나 山으로 찾아올라갔다.

이상하게도 빨간 열매가 달린 풀이 눈에 띄었다.

韓씨는 그 풀을 파다가 채배해서 먹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임신이 되어 옥동자를 낳았다.

이것이 우리 나라에서 처음 人蔘을 발견하

고 재배한 시초라고 하지만, 山蓼를 처음 발견한 것은 中國이라는 說이 있다. 그후 이와 비슷한 종류의 蓼를 발견한 것이 高麗人蓼이라는 說도 있다.

紀元前 207년에 발견되었을 당시에는 山蓼이란 명칭이 없었다.

그 產地나 人蓼의 모양에 따라서 이름이 붙여졌다.

우리 나라에서 처음 山蓼이 발견된 것은 三國시대 말엽이라고 傳해지고 있는데 뚜렷한 記錄은 남아 있지 않다. 그러나 新羅시대에 人蓼이 中國으로 수출되었다는 記錄이 中國古書에 있다.

新羅 聖德王 12년 4월에 唐나라 玄宗에게 人蓼을 보냈다는 記錄이 있다.

또 高麗 文宗王 34년(1080)에 宋나라 神宗에게 人蓼 1천근, 동 35년(1081)에 1천근 忠烈王 5년(1279), 동 23년(1297), 동 25년(1299)에도 元나라 世祖에게도 人蓼을 보냈다는 記錄이 남아 있다.

그리고 百濟 때도 人蓼이 있었다는 記錄이 있다. 武寧王 12년에는 梁나라 武帝에게 보냈다는 梁나라의 陶弘景이 쓴 名醫附錄에 쓰여 있다.

人蓼의 種類와 効用

人蓼의 종류에는 山蓼과 栽培蓼 두 가지가 있다.

中國에서는 宋나라 때부터 東北지방(滿州)과 北西部지방의 深山에서 野生種으로 채취되었다.

또 日本에서도 재래의 類似人蓼이 있었지만 高麗人蓼의 流入으로 그 종자를 재배하고 있다.

기후와 토질관계로 藥効가 우리나라 產과는

현격차한 이가 있다.

이외도 西洋種·아메리카種 등이 있는데 이것을 西洋人蓼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원 명칭은 「만도라고라」라고 한다.

이 「만도라고라」는 유럽에서 靈藥이라고 하는데 東洋의 人蓼과 비슷한 格을 갖는 藥草이다.

植物學的으로는 類似人蓼과도 다른 특이한 植物이다.

흔히 人蓼을 強壯劑이라고 하여 여러가지 効과가 있어 옛날에는 外用藥으로도 쓰였다. 中國의 人蓼이 멸종된 原因의 하나로는 기근이 심할 때 食用으로 많이 채취해서 먹었기 때문이라는 것.

그만큼 人蓼은 耐饑食糧으로, 飢渴방지로 또 石毒의 解毒, 阿片毒의 解除, 不妊치료, 胎兒의 性轉換, 雷恐怖症방치, 眼疾, 피부염 등의 疔毒, 虛弱체질의 개선, 蛇毒제거, 頭髮의 黑化 등 여러가지로 쓰이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대체로 三國시대부터 高麗시대에 이르기까지 醫學이 별로 발전하지 못했었다.

그러다가 文宗 26년(1072), 仁宗 7년(1128)에 宋나라에 醫官을 초방하여 藥材를 얻어왔는데 그때 쓰인 鄉藥 가운데 人蓼이 대체된 흔적이 있어 처음으로 人蓼을 藥用化한 시기로 보여진다.

그 무렵 中國에선 이미 人蓼이 멸종상태에 있어서 人蓼을 高麗에서 수입했다. 中國產人蓼보다 藥効가 훨씬 뛰어나 高麗人蓼이 人蓼중의 王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오늘날 人蓼茶라고 불리우는 人蓼茶의 이름은 日本人들이 우리 나라에 이주하기 시작한 舊韓末에 생긴 말이다.

그 이전엔 蓼茶라고 하여 李朝初期부터 불

리워왔다.

中國에는 그 당시에 枸杞茶라는 것이 있었다.

우리 나라에는 橘茶(귤꽃을 달린 것)와 杉茶(落葉松의 순을 따서 달린 것)가 있었다. 당산사나무의 잎을 말려서 茶로 끓여서 쓰기도 했다.

그러나 실질에 있어서는 蓼茶라는 것은 獨蓼湯과 별로 차이가 없었다.

獨蓼湯은 人蓼을 주로 해서 대추, 잣, 생강, 熟地黃 따위를 中和劑로 섞은 人蓼湯이다.

世宗實錄에 의하면 明나라의 使臣이 茶蓼을 좀 달라고 해서 世宗大王께서 使臣에게 각각 30근씩 下賜하셨다.

너무 많이 주자 使臣들은 깜짝 놀라서 사양했다.

또은 이것은 湯茶의 蓼이니 받아두라고 했다는 記錄이 있다.

그러므로 人蓼은 湯으로서 뿐만 아니라 散劑, 膏裝, 錠劑, 丸藥으로도 外用, 內用으로 사용되었다.

우리 나라에선 蓼茶의 재료로 人蓼의 뿌리가 이용되었지만, 中國에서는 人蓼의 잎과리도 茶로 쓰였다.

囉仙山樓志에는 신선한 蓼葉을 음료로 쓴다는 말이 있고 本草綱目拾遺에는 人蓼잎을 茶로 사용한다고 쓰여있다.

人蓼과 國家財政

일찍이 中國에서는, 특히 明나라, 淸나라시대에 人蓼이 국가세입에 크게 기여했었다. 당시에 대표적인 交易品으로는 人蓼과 담비가죽이 있었다. 이 담비가죽은 부유층에서 옷옷, 목도리, 소매뿌리 등에 이용되었다. 가격도 상당히 비쌌지만 人蓼보다는 비싸지 못했다.

人蓼은 明나라, 淸나라 뿐만아니라 우리 나라에서도 국가세입에 큰 비중을 차지했었다. 高麗朝에서부터 人蓼이 널리 재배되고, 李朝시대에까지도 人蓼에 의한 국고수입이 크게 늘어났다.

실로 人蓼은 金錢처럼 귀중했다. 일종의 銀과도 같은 존재가 되어 銀蓼이란 말까지 나왔다. 말하자면 銀蓼이란 화폐로 대응되어 蓼이란 뜻이다. 그래서 人蓼은 첫째, 明나라로 상납하는 공헌품으로, 둘째로는 北京으로 가는 使臣의 여비, 또는 기밀비로, 세째는 日本과의 交易品으로, 네째는 外國使臣에게 보내는 선물로도 쓰여졌던 것이다.

한편 平安道の 예를 보면 戶蓼이란 것이 있어 人蓼으로 戶別類를 내게 했다. 肅宗 때에는 山蓼을 채취하는데 類蓼을 내게 했다.

세계 1차大戰후에 온 세계가 경제공황에 빠져 있을 때의 일이다. 美國에서는 牛乳의 市價를 유지하기 위해 大西洋에다 牛乳를 쏟아버렸다.

브라질에서는 코피의 國際時勢를 유지하기 위해 코피를 소각시킨 사실이 있었다. 또 日本은 上海등지에서 人蓼값을 올리기 위해 人蓼을 실어다 難破船을 가장 수많은 人蓼을 黃海에 처넣은 일도 있었다.

이렇듯 牛乳나, 코피나, 人蓼이 그 나라 財政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

요즘은 洋藥이 발달하였다고 하지만 人蓼의 수요가 적어진 것은 아니다. 독일, 프랑스, 日本 등지에서도 人蓼의 藥効, 食効를 現代醫學的으로 분석하고 있어 앞으로도 계속 서광이 비치고 있다.

人蓼의 생산이 옛날처럼 우위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으나 人蓼酒를 비롯한 우리 나라産 人蓼類제품의 海外수출이 늘고 있다는 사실은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